캄보디아에서의 생태-경제-교육-선교 모델

Eco/Economics-Education-Mission Model in Cambodia

소른 사랏(Sorn Sarath, 목사, 캄보디아)

2000년부터 김기대, 유소현 가족(한국 선교사)은 캄보디아 따께오에서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따께오는 수도 프놈펜과는 80km 떨어져 있고,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발 촉진자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실행과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적절한 교육이 없이는 미숙한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깊은 의미에서 지역사회개발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시키고, 목적한 바에 도달하는 교육적 과정입니다. 농촌개발을 위한 우리의 선교 조직인 '캄보디아의 이웃'(NOC, Neighbor of Cambodia))의 전략적 접근은 이러한 실행과 교육 양자 간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교육 및 전도 프로그램'(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Evangelism program)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사회개발학교'(ISAC, Institute of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우리의 사역을 수행하는 양 날개입니다. CHE와 ISAC은 우리의 따께오 프로젝트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보건훈련, 수공예를 통한 생계수단 확보, 관개사업 그리고 농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단위의 사업과 더불어, 캄보디아 농촌 청년들이 미래의 농촌지도자로 훈련되어 왔습니다. 따께오의 3만평 부지 안에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촌빈곤퇴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특히 소농(小農)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농들을 위한 자급자족 사업(양계, 양돈, 양어, 원예, 식품가공) 뿐만 아니라 대안에너지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농들 대상의 태양열 조리기와 태양광 가정시스템 공급 사업입니다. 적정기술센터(Appropriate Technology Center)에 의한 설치사업은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ISAC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평균 20-30명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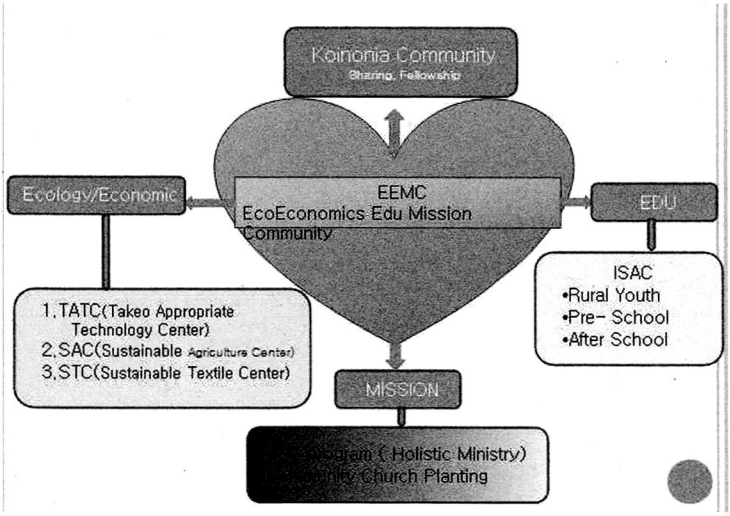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이웃'은 캄보디아 정부에 등록된 NGO입니다. 우리의 핵심사업은 '생태/경제-교육-선교 공동체'(EEMC, Eco/Economic Edu Mission Community)를 세우는 것입니다. EEMC 모델은 '캄보디아의 이웃'의 핵심 기능을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생태·경제적 과정은 교육과정과 함께 합니다. 이러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우리의 선교는 지역사회보건교육(CHE) 프로그램과 지역교회개척으로 실현됩니다.

생태학과 경제학은 동일합니다. 그 어원인 '오이코스'(Oikos)라는 말은 '집'을 뜻합니다. 집을 의미하는 생태(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환경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기후, 지구의 물리적 구조,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처 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학)이란,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생태(학) 안에 포함된(confined) 의미로서, '집에 대한 관리'를 뜻합니다. 그것은 수입, 직업, 자원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폐쇄계(closed system)인 이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공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집건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몽'(Edification)이라고 부르

는 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집(생태학+경제학)의 청지기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생태/경제

우리는 따께오 적정기술센터(TATC), 지속가능한 농업센터(SAC), 지속가능한 섬유센터(ST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따께오 적정기술센터(TATC)

이 센터는 한국 팀의 지원으로 201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농민을 위한 태양열조리기와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적 유용성과 함께 소득에 대한 연구도 하였습니다. 세 개의 10㎡짜리 쉐플러 반사경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팜 슈가(Palm sugar)를 뽑아내는데, 이것은 화목 소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도 유익하고 환경적으로도 무해한 사업입니다.

2) 지속가능한 농업센터(SAC)

SAC 사업으로 소농 자립을 위한 연구와 실용화(commercialization)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돈, 양계, 식품가공(햄, 소시지), 원예, 허브차, 비누, 샴푸, 천연비료의 생산, 그리고 모링가 분말 보급 등이 포함됩니다.

3) 지속가능한 섬유센터(STC)

따께오는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는 지역자원개발을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따께오의 섬유산업의 잠재력과 유용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좋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천연염색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끌 것입니다.

2. 교 육

2003-2006년에 우리는 농촌청소년들의 훈련과 방과 후 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청소년들을 위해 '꿈과 미래학교'(School of Dream and Future)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구적인 새로운 학교 부지로 옮긴 후에, 우리는 학교 이름을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사회개발학교'(ISAC, 2007년 이래)로 개명하였습니다. 농촌청소년 교육과 방과 후 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 과정도 개설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기숙 프로그램에는 공동체적 생활양식 개발에 다가가기 위한 실천 교육과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직업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수도작, 텃밭 가꾸기, 양어, 자연 양돈 및 양계, 영어와 컴퓨터 반, 지역사회개발수업, 워크샵 및 동기부여수업 그리고 대안기술 수업 등이 숙련된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집니다. 그간 60여명의 여자들을 포함해서 약 260여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농부로서, 유치원 교사로서, NGO나 기업에서 그리고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3. 선 교

1) 지역사회 건강 교육/전도(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Evangelism)프로그램

CHE는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보건 및 전도교육에 의해 뒷받침되는 전인적인 접근입니다.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CHE는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건강, 교육/전도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건강이란 단지 인간의 육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적 관계 즉 전인적 건강에까지 그 개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자기수용, 자아존중, 안정된 친밀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함양(upliftment)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자연적) 필요 또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주택, 문자 해독, 운동, 영양, 교육, 위생, 농업 등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개인적 필요가 갖추어진 연후에 우리는 타인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바, 사회적 역할, 타인 사랑, 관계들, 수용력 등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성장이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격려와 복음전도, 청지기 의식, 제자도, 하나님께 순종, 영적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CHE 사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8명으로 구성된 마을개발위원회, 12명의 여성이 선출됨.
② 69명의 CHE 요원, 26명의 여성이 선출됨.
③ 5개의 관(管)우물을 포함한 99개의 변소 설치.
④ 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7,300m 길이의 관개수로 설치.
⑤ 매년 소득창출사업으로 682명이 혜택을 받음.
⑥ 4개의 저축기구(saving association)조직
⑦ 140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매년 영어교실에 참여.
⑧ 문해반에 교육 용품 지원.

⑨ 마을회관 건립(1개소).

⑩ 97개의 정수기 보급.

⑪ 매년 800여명 대상의 의료진료와 간단한 수술, 그리고 이미용 봉사

⑫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학습 제공

⑬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의 예배를 드림.

2) 교회 개척

농촌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두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 속산따독퐁 교회

이 교회는 ISAC학교를 졸업한 시몬과 르앙 부부가 목회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의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18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장년을 위한 주일 예배, 매주 토요일 성경공부, 가정방문, 이웃 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금요일에는 영어공부교실도 하고 있고, 소규모 가축사양, 무료 의료 봉사 및 간단한 수술 등도 하고 있습니다.

(2) 키리총코 교회

소른 사랏과 켐 챤트리아 부부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부부도 ISAC 출신인데 2005년에 망고나무 아래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80명의 아동과 35명의 청년 및 장년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성경공부, 전도, 영어교실, 무료 의료 봉사, 간단한 수술, 주택건축에 인력과 자재를 빌려주는 일 등은 각기 관련 여부에 따라 모두 다른 일들입니다. 유치원은 매년 착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립, 자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